

Neutral

이차전지(Neutral)

국내 업체들의 ESS 전환 더욱 가속화될 전망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 76GWh(+83% YoY) 기록

1H26 전세계 ESS 배터리 출하량은 461GWh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북미 출하량은 76GWh로 83% 늘었다. 통상 하반기에 출하가 집중됐던 계절성을 고려하면 올해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150GWh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합산 출하량도 약 6GWh에서 15GWh로 159% 증가했고, 점유율은 14%에서 20%로 상승했다.

1H26 출하 급증에는 세이프하버 이연 물량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 존재

미국 정부는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OBBBA에서 섹션48E 투자세액공제(ITC)에 금지외국기업(PFE) 관련 공급망 제한을 추가했다. 2026년 착공 프로젝트부터 섹션 48E 투자세액공제(ITC)를 받기 위해 MACR 5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5년 말까지 착공 요건을 확보한 프로젝트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디벨로퍼들이 지난해 세이프하버를 우선 확보하고, 실제 배터리 발주와 설치를 올해 이후로 미루면서 1H26 출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하버 효과를 제외해도 북미 ESS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레벨업

2025년 세이프하버를 확보한 미국 ESS 프로젝트는 13GW 이상이며, 관련 배터리 물량은 60~80GWh로 추정된다. 당사는 이를 2026년 40GWh, 2027년 20GWh, 2028년 10GWh로 분산해 반영해 보았다. 2026년 북미 예상 수요 170~180GWh에서 관련 물량을 제외한 조정 출하량은 130~140GWh로, 2025년 대비 15~25% 가량 증가한다. 세이프하버 효과를 제외해도 기초 수요는 견조하다는 의미다. 향후 AIDC도 추가 성장 동력이다. 전세계 AIDC향 ESS 출하량은 2025년 12GWh에서 2030년 272GWh로 2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AIDC 투자가 집중된 북미에서는 관련 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전환 가속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V 공장을 활용해 2026년 말 50GWh 이상, 2027년 말 70GWh 이상의 ESS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SDI도 2027년 말까지 30GWh 이상을 구축하고, GM 지분 인수로 단독 소유하게 된 Synergy Cells를 추가 ESS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최근 북미 ESS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이후에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라인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8년 실적 컨센서스의 상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재평가 기대

향후 메모리 업종에 집중된 수급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중장기 이익 추정치의 상향 가능성이 높은 이차전지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오는 11월 예정인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ESS 관련 정책 변화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올해 말 전후로 EU의 IAA가 발효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의 직접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중소형주에서는 서진시스템, 한중엔시에스, 세방전지, 엘앤에프의 수혜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음 페이지 계속)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정원석

2122-9203

wschung@imfnsec.com

[IT RA]

박정하

2122-9195

jhpark@imfn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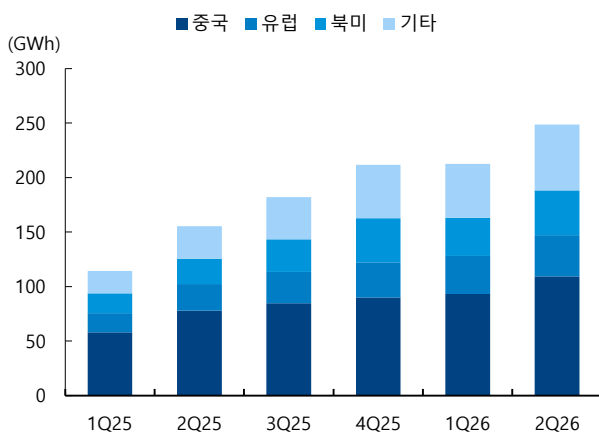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 76GWh(+83% YoY) 기록

최근 글로벌 ESS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ESS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기존 EV 생산설비의 ESS용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1H26 전세계 ESS 배터리 출하량은 461GWh로 전년 동기 270GWh 대비 약 71% 증가했다[그림1]. 이 가운데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76GWh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증가했다[그림2]. 분기별로는 1Q26에 35GWh(+91% YoY), 2Q26에 41GWh(+76% YoY)를 기록했다. 특히 2Q26 출하량은 계절적 성수기였던 4Q25의 41GWh 수준마저 웃돌며 북미 ESS 배터리 시장의 분기 출하 규모 자체가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북미 ESS 수요 예상치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약 100GWh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북미 출하량은 3Q26 중 연간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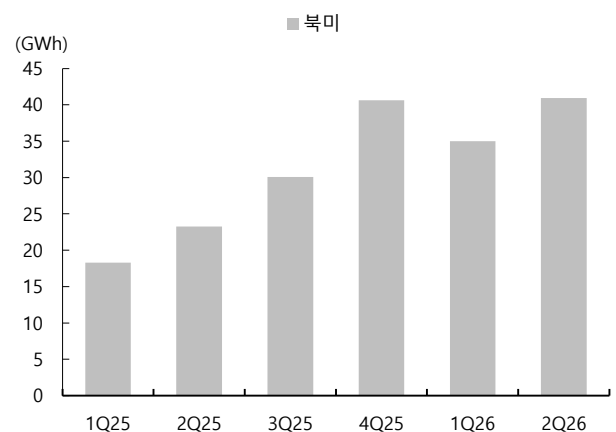
SNE리서치 기준 2025년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약 110GWh였다(국내 배터리 셀 업체와 SNE리서치 발표치 데이터간 일부 차이 존재). 2H26 출하량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에 그치더라도 연간 출하량은 152GWh에 달한다. 통상 하반기에 출하가 집중됐던 계절성을 고려하면 올해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150GWh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3]. 1H26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각각 10GWh, 5GWh 수준을 기록했다[그림4]. 양사 합산 출하량은 전년 동기 약 6GWh에서 약 15GWh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약 159%에 달한다. 합산 시장점유율도 14%에서 20% 수준으로 상승했다. 중국 업체들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PFE 관련 공급망 규제가 본격화될수록 미국 내 생산능력과 비PFE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에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연 수요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1. 주요 지역별 리튬이온 배터리 ESS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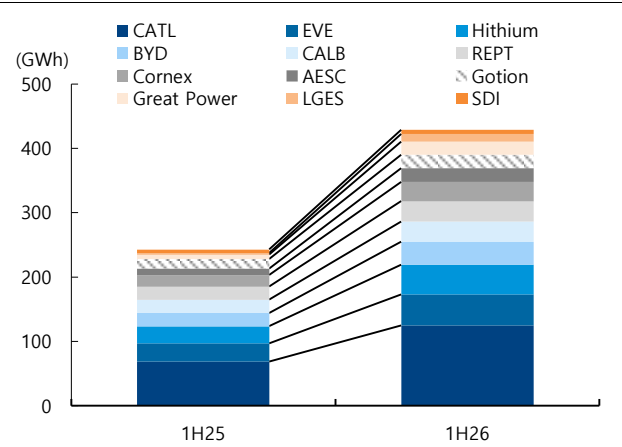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북미 리튬이온 배터리 ESS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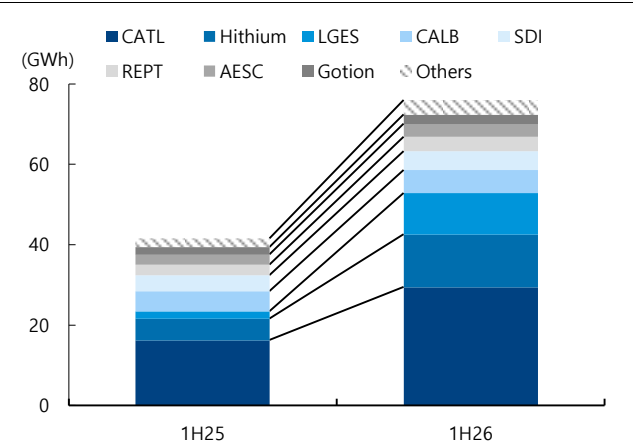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주요 업체별 전세기 리튬이온 배터리 ESS 출하량



자료: SNE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주요 업체별 북미형 리튬이온 배터리 ESS 출하량



자료: SNE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1H26 출하 급증에는 세이프하버 이연 물량도 일부 반영됐을 것

1H26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 급증에는 2025년 하반기에 집중된 세이프하버 확보 효과가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OBBBA에서 섹션48E 투자세액공제(ITC)에 금지외국기업(PFE) 관련 공급망 제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착공하는 ESS는 비PFE 직접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MACR(비PFE의 직접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5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그림6]. 중국산 배터리 또는 중국계 공급망을 활용한 ESS 프로젝트는 PFE 제한으로 인해 섹션 48E 투자세액공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그림7].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인정(Beginning of Construction, BoC)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지급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도 착공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미국 디벨로퍼들은 배터리를 즉시 조달하거나 프로젝트를 조기에 완공하기보다 단기, 중기 프로젝트의 세이프하버와 착공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실제 배터리 발주와 납품, 설치는 이후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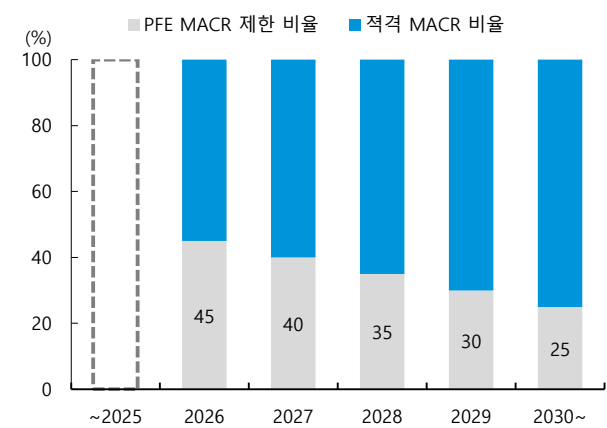
즉, 2025년에는 개발사들이 세이프하버와 착공 요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젝트의 배터리 조달과 실제 설치가 이연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부터 섹션 48E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PFE 공급망 제한이 시행됐음에도 중국 업체들의 북미향 ESS 배터리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물론 미국 내에서 PF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 셀 공급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 규모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25년 말 세이프하버를 확보한 프로젝트의 배터리 조달이 올해 이후로 이연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5.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주요 품목별 대중국 관세율 변화

미국의 대중국 ESS용 배터리 수입 관세			
2026년 7월 24일 이전		2026년 7월 24일 이후	
총 관세	38.4%	총 관세	28.4%
기본 관세	3.4%	기본 관세	3.4%
Section 122 (국제수지법)	10.0%	Section 122 (국제수지법)	-
Section 301 (불공정 무역법)	25.0%	Section 301 (불공정 무역법)	25.0%

자료: Congres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OBBBA 법안 내 섹션 48E 관련 MACR 기준



자료: SNEResearch,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미국 ESS에 대한 ITC 구조

구분	공제율	적용 조건
기본 ITC	6%	Section 48E 적용 대상 ESS가 2025년 이후 서비스 개시, 단 기본 요건만 충족
확장 ITC	30%	Prevailing wage + Registered apprenticeship 요건 충족시
Domestic content 보너스	+10%p	Domestic content 요건 충족 그리고 ① 1MW 미만이거나 ② 2023-01-29 이전 착공이거나 ③ prevailing wage/apprenticeship 충족
Domestic content 보너스	+2%p	Domestic content 요건은 충족하지만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nergy community 보너스	+10%p	Energy community에 위치하고, 기본 30%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Energy community 보너스	+2%p	Energy community에 위치하지만 기본 30% 구조가 아닌 경우

자료: IRS, iM증권 리서치본부

세이프하버 효과를 제외해도 북미 ESS 수요 예상보다 빠르게 레벨업

시장조사기관인 Wood Mackenzie에 따르면 미국 개발사들이 2025년에 세이프하버를 확보한 ESS 프로젝트는 13GW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틸리티 ESS의 평균 저장시간을 3~4시간으로 가정하고, 공급망 내 선행 재고 등을 고려한 배터리 물량은 60~80GWh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세이프하버를 확보한 프로젝트가 모두 2026년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대형 유틸리티 ESS는 계통연계와 변전설비 구축, 인허가 및 EPC 공정 등에 1~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는 세이프하버 관련 배터리 수요 범위 중간값인 약 70GWh를 기준으로 출하 시점을 3년에 걸쳐 분산해 2026년 약 40GWh, 2027년 약 20GWh, 2028년 약 10GWh로 가정해 보았다[그림8]. 이를 반영해 2026년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을 170~180GWh로 가정시, 여기에서 세이프하버 관련 물량 약 40GWh를 제외하면 조정 출하량은 130~140GWh로 추정된다. 이는 2025년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 110GWh 대비 15~25% 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 세이프하버에 따른 출하 시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북미 ESS 배터리 수요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7년에는 2026년 조정 출하량 130~140GWh에 약 20%의 기초 성장률을 적용하고 세이프하버 이연 물량 약 20GWh를 더할 경우,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이 175~19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9]. 세이프하버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2027년부터의 수요 성장률은 2026년보다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둔화일 뿐, 북미 ESS 배터리 시장의 절대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한 단계 높아졌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는 북미 ESS 수요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림10].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ESS가 전력 수급과 품질을 안정화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세계 AI 데이터센터용 ESS 배터리 출하량은 2025년 약 12GWh에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2027년 약 61GWh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약 272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11]. 5년간 20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전세계 ESS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약 4%에서 2030년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북미는 전체 ESS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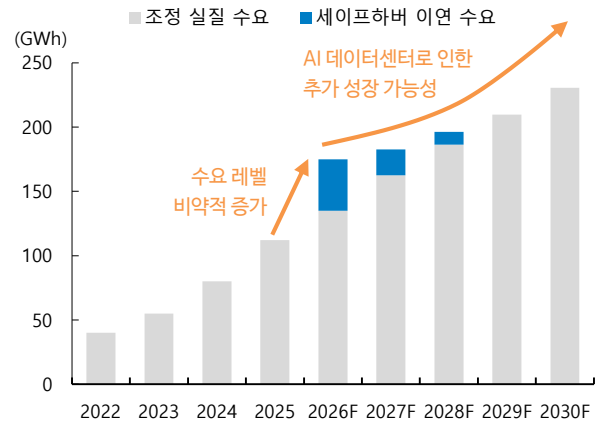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세이프하버 관련 이연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북미 ESS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향후 미국에서 PF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 셀과 핵심 부품의 공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다. 북미 ESS 수요 확대와 공급망 규제가 맞물리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생산 전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8. 세이프하버 이연 물량 가정

배터리/ESS 출하 시점	세이프하버 연간 물량 비중 가정	추정 물량
2026	55~60%	35~45 GWh
2027	25~30%	16~22 GWh
2028	10~20%	9~12 GWh
세이프하버 총 추정 물량		60~80 GWh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북미 ESS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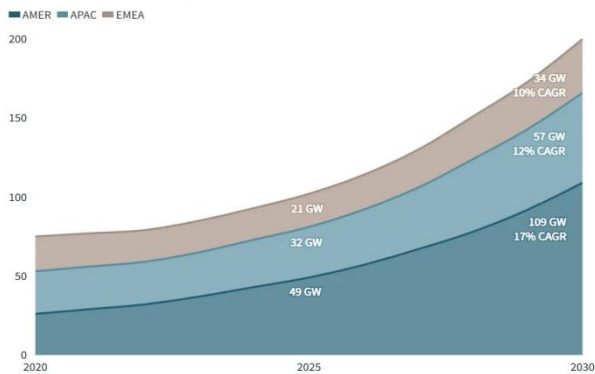
주1: '26년 이전 SNEResearch 기준

주2: '26년부터 세이프하버 효과 반영 추정

그림10. 전세계 AI 데이터센터 규모 전망:
2030년 총 200GW 중 미국 5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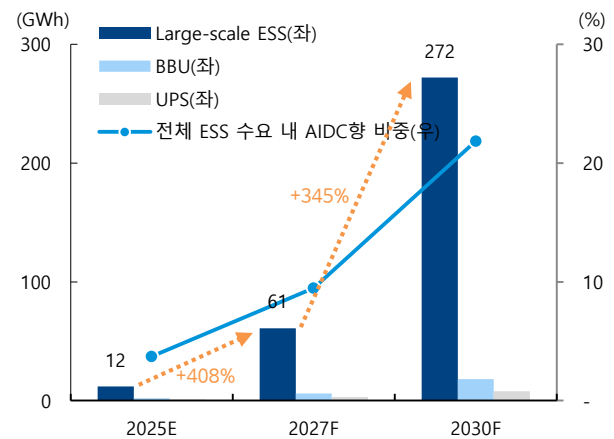
Nearly 100 GW of new data centers will be added between 2025 and 2030, doubling global capacity

Global supply forecast by region (GW)



자료: Avidsolution,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전세계 AI 데이터센터향 ESS 배터리 출하량



자료: GGII, iM증권 리서치본부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EV 공장 활용, 삼성SDI는 GM 합작 종료 이후 ESS 전환 가속화 예상

삼성SDI는 지난 8월 11일 공시를 통해 GM과 추진해 온 배터리 합작투자를 종료하고 해방 법인을 단독 소유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GM이 보유한 SDI-GM Synergy Cells Holdings 지분 49.99%를 인수해 지분율을 기존 50.01%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삼성SDI가 북미에서 처음으로 단독 소유하는 대형 배터리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Synergy Cells 공장은 당초 총 투자액 약 35억달러, 연간 생산능력 27GWh 규모로 계획됐지만, 단독 소유 전환 이후 ESS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해 빠르게 증가하는 북미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로 삼성SDI는 2Q26 실적 발표에서 기존 미국 ESS 수주만으로도 2029년까지 계획된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채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협의 중인 프로젝트까지 포함할 경우 2028년부터 수요가 생산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생산능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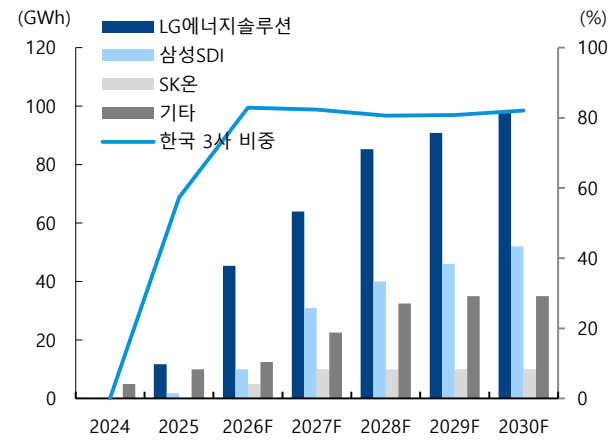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다수의 EV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 변화에 맞춰 ESS 생산라인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삼성SDI는 2027년 말 약 30GWh 규모의 ESS 생산능력을 확보한 이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Synergy Cells 공장의 단독 소유 전환은 이러한 생산능력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장 가동과 고객 인증 일정을 고려하면 2028년을 전후해 ESS 생산라인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번 결정은 미국 EV 수요 둔화에 대응한 생산구조 재편인 동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삼성SDI는 기존 ESS 수주잔고와 신규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2028년 이후 북미 ESS 매출 성장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SS 전환 가속화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생산거점에서 기존 EV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5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7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그림12]. 삼성SDI도 2027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ESS 생산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북미 ESS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이후에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라인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8년 실적 컨센서스의 상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그 동안 2027년 이후 미국 ESS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대할 신규 생산거점의 가시성이 낮았다. 그러나 GM과의 합작 종료 및 Synergy Cells 공장의 단독 소유 전환을 통해 중장기 ESS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향후 ESS 출하 확대에 따른 이익 추정치 상향은 현 주가의 선행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추고 주가 상승 여력을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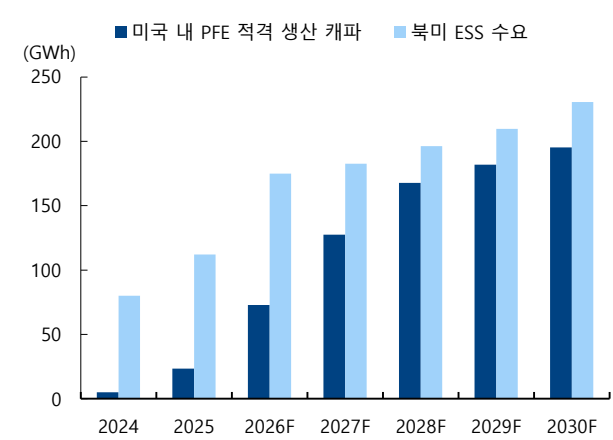
그림12. 미국 내 ESS용 배터리 생산 캐파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2H28, 2H29, 2H30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각각 1개 라인 확대 가정

그림13. 북미 ESS 수요와 미국 내 PFE 적격 생산 캐파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하반기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재평가 기대

최근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2026~2027년 실적 성장세가 유례없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Q26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향후 메모리 업종에 집중된 수급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중장기 이익 추정치의 상향 가능성이 높은 이차전지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인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ESS 관련 정책 변화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올해 말 전후로 EU의 IAA(산업가속화법)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의 직접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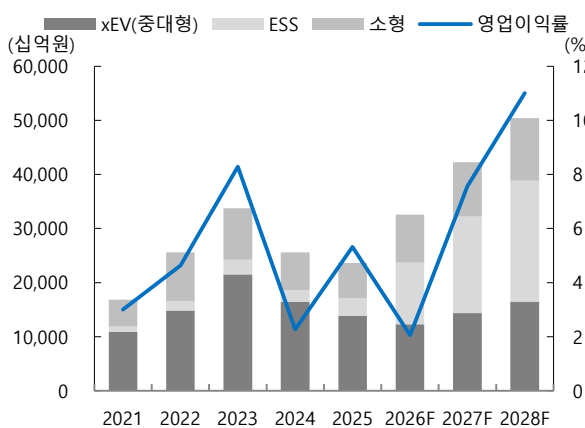
주요 섹터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중장기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국내 이차전지 셀 업체들의 2028년 예상 실적 기준 평균 P/E는 19.2배 수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1.3배, 삼성SDI는 17.1배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차전지 업종이 2020년 이후 구조적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아 왔다는 점과 2028년에도 주요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EPS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2028년 이익 성장률이 한 자릿수 또는 10%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차전지 셀 업체들은 높은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2027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영업이익이 각각 378%, 34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026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결과다. 반면 2028년에도 양사의 영업이익이 각각 74%,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의미가 다르다. Bloomberg와 Quantwise 전망치 기준 2028년 EPS 증가율도 LG에너지솔루션 80%, 삼성SDI 49%에 달한다. 이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적자 축소에 그치지 않고, ESS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이익 성장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2020~2023년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확대와 중장기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핵심 동력이었다. 당시에는 장기 수주잔고와 생산능력 증설 계획을 중심으로 높은 멀티플이 형성됐지만, 실제 실적은 완성차 업체의 EV 전략과 보조금 정책, 원재료 가격, 재고 조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변동했다. 반면 현재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중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과거 EV 중심 성장 사이클보다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정책 수혜의 가시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미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미국 현지 생산설비의 가동률 상승,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이익 증가율을 고려하면 업종의 투자 매력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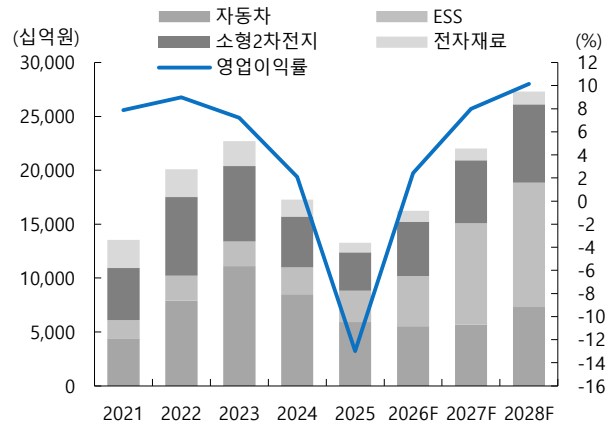
다만 업종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접근보다는 미국 내 ESS 생산능력과 추가 전환 여력, 수주 가시성, PF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원가 경쟁력과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미 현지 생산기반과 수주잔고를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중소형주에서는 삼성SDI와 SK온의 북미향 ESS 완제품을 생산하는 서진시스템, 삼성SDI ESS에 수냉식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중엔시에스, LG에너지솔루션 ESS용 배터리 패키징을 담당하는 세방전지 등 ESS 관련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SDI ESS향 LFP 양극재를 본격 양산하는 엘앤에프의 수혜도 예상된다.

그림14. LG에너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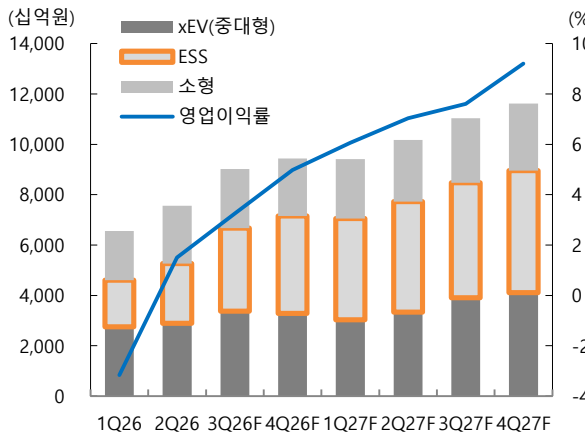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삼성SDI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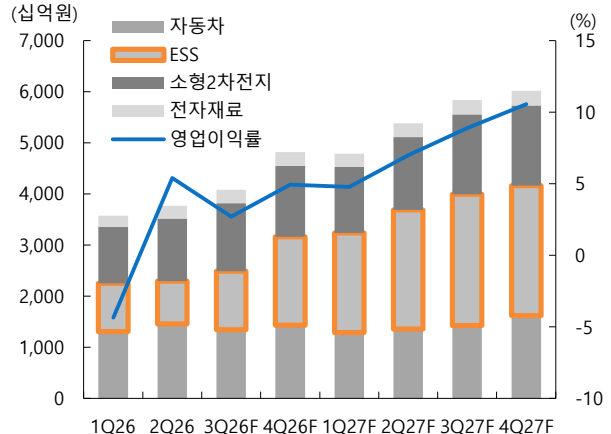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LG에너지솔루션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삼성SDI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